

		<h1>보 도 자 료</h1>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배포일시	2019. 8. 13(화) 총 9매(본문3)	
담당 부서	미래드론교통담당관	담 당 자	• 과장 이랑, 사무관 서정석, 주무관 박유준 • ☎ (044) 201-4198, 4199	
	첨단항공과	담 당 자	• 과장 오원만, 사무관 홍일산, 주무관 김영민 • ☎ (044) 201-4253, 4206	
보 도 일 시		2019년 8월 1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1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드론 택배·택시 상용화 등 미래 드론교통 전담 벤처형 조직 신설 -23년까지 드론 교통관리체계 시범서비스 구현 목표로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택배·택시로 대표되는 교통혁신의 이슈인 드론교통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제2차관 직속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19.8.13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 이는 '정부혁신계획' 일환으로 행안부에서 신설한 벤처형 조직 제도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벤처형 조직은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가 단기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향후 달성될 경우 국민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 벤처조직 수요조사('19.4월)→1차 심사('19.5월)→대국민 최종심사('19.6)→ 미래 드론교통 과제가 포함된 10개 벤처형 조직을 선정

□ 드론시장은 군수용을 시작으로 레저용·산업용으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교통 수단(모빌리티)으로서 기술개발과 서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 (시장변화) 군수용 → 취미·레저용 → 산업용 → 여객·화물 수송 등 에어모빌리티

- 현재는 초기 기술개발 단계이지만 드론택시·택배 등 대중이 이용하는 혁신적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 *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비행이 가능한 개인형 항공기)→ MAM(Urban Air Mobility, 도심형 무인비행체)로 논의주제가 변화
 -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어버스, 벨 등 기존 항공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도요타·벤츠·포르쉐 등 자동차회사들도 드론교통 관련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 이 중 가장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업체는 교통플랫폼 사업자인 미국의 우버社(사)로 '20년 테스트를 거쳐 '23년에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과감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반면, 실제 드론교통 운영을 위한 드론기체의 안전성 검증, 하늘길 확보, 관제 및 인프라 구축 등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은 초기단계로 아직 구체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도 세계적 경쟁 속에서 드론교통의 선도자(First Mover)가 되기 위해 국토부에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출범시켰다.
-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차원의 드론교통관리체계 마련 및 시범서비스를 '23년에 구현하여 민간차원의 드론택시 서비스모델 조기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밝혔다.
 - * 드론택시 기체개발 연구개발(R&D)도 산업부 주관으로 병행 추진 ('19~'23 / 유무인 겸용 분산추진 수직이착륙 1인승급 비행시제기 시스템 개발)
 - 현재 국내는 아직 민간차원의 사업진출·기술개발이 초기단계로 우선 국가 R&D를 통해 기체개발과 인증체계 등을 마련하게 된다.
 - * (기체개발) 유·무인겸용 분산추진 수직이착륙 1인승급 비행시제기 시스템 개발 / '19~'23 / 235억 / 산업부 주도
 - (인증체계)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안전운항기술 개발 / '19~'23 / 213억 / 국토부 주도

- 세부적으로는 안전·교통·산업 측면을 토대로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법·제도와 인프라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드론교통 주요 검토분야 및 중점 추진사항 >

	중점 추진사항
안전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체·부품의 기술기준, 사고시 대응 등 안전성검증 관련 기준 마련 ·정부의 일괄적 기준을 제시 또는 민간의 누적 데이터만으로 입증 중 선택 등 검증·입증방식의 패러다임 변경도 검토
교통	·드론이 다닐 수 있는 전용공역(Drone Highway)을 확보하고, 공역·운항·관제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 ·드론교통 수요분석 후 드론교통 시설·설비 등 점진적 구축방안 마련 및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연계수단 마련
산업	·교통플랫폼, 기체제작, 인프라·설비, 투자·보험 등의 관련 사업자 간 사업범위 및 역할·책임 관계 등 부여 ·합리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해 분쟁 시 소비자 구제방안도 마련

□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은 “3차원 공중교통망이 본격 구축될 경우 교통혼잡 해소에 따른 사회적비용 저감은 수도권 기준 연간 2,700여억원에 달하는 중요한 교통혁신 과제”라고 밝혔다.

- “아직 세계적으로 기술개발과 정부 지원체계 논의가 초기단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논의를 선점·주도할 수 있어 의미가 크므로 출범 후 1년 내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 로드맵 마련 단계에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발족·운용 예정

- “차관 직속으로 조직이 생긴만큼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추진의 각오도 다졌다.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서정석 사무관(☎ 044-201-4198), 박유준 주무관(☎ 044-201-419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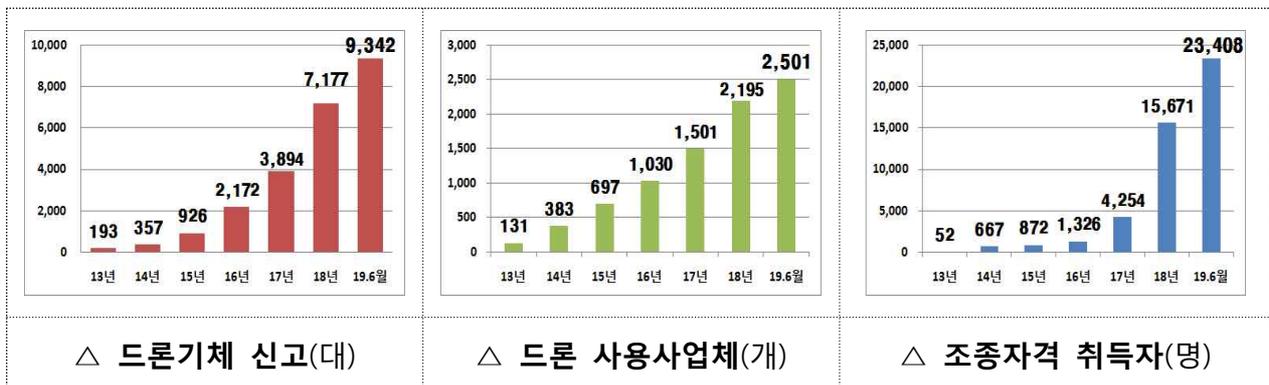
참고 1

드론시장 형태 변화 및 현황

- 군수용에서 시작한 드론은 레저용으로 대중의 관심을 이끌었고,
 - 최근 환경·치안·국토조사·농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가파른 성장이 예상돼 4차산업과 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요 분야로 부상
- * (시장변화) 군수용 → 취미·레저용 → 산업용 → 여객·화물 수송 등 에어모빌리티
- ** 세계 산업용 드론시장 규모 예상: ('19) 66.5억\$ → ('26) 670.2억\$

- 우리나라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17.12)」에 따라 공공수요 창출, 규제개선, 산업생태계 조성 및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 * 드론산업은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중점·추진 중('17.12~)
- 이에 드론 기체신고, 사용사업체, 조종자격자 등의 주요지표가 최근 3년간('16~'18) 46~244%로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 중

【드론시장 주요지표 추이('19.6월, 누적 기준)】



KEYWORD 01

안전

기술적 요구
기체의 안전성, 통신 안정·보안성, 차세대 동력원, 자율주행 AI

KEYWORD 01

안전

정부의 할일
기술의 수준과 인증의 방식을 결정

기술적 요구수준
'완전수동→부분자동→반자율
→완전자율' 등 단계별로 나눌때
요구되는 기술분야 및 완성도

인증방식
정부에서 **입괄적 기준**을 제시·
요구할지, 민간에서 **운용거리·
속적데이터**로 인증할지

안전

KEYWORD 02

교통



드론교통 특성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체이자 항공 교통수단



Road



Flow



People

교통수단으로서 **길이** 필요하고,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흐름**을 통제해주며,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제공될 필요



KEYWORD 02

교통



정부의 할일

교통을 설계하고 관리



비행구역 설정

발달보다는 놀이 기존 항공기와 분리된 비행고도로 드론 전용도로 (Drone Highway)를 설정해 고속비행을 지원



중립적인 관제 제공

여러 드론들이 날아다닐 경우 안전을 확보하고 공역의 통제자로서 국가는 중립적인 관제기능 제공 필요



수요 예측

드론교통 수요가 있는 곳에 드론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적 뒷받침 필요



교통 연계

도로/철도/공항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효율적 연계

03

산업



연관된 사업자

제작·통신 등 기술분야의 연관사업자부터 플랫폼·금융 등 서비스분야의 사업자까지 많은 사업자가 연관된 생태계

- 美 Morgan Stanley는 도심 드론교통(UAM) 시장규모가 '40년에 1.5 Trillion\$ (1천8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p>교통사업자 서비스공급자, 방위산업출발</p>	 <p>기체 연재기 제작, 핵심부품 제작, 정비수선</p>
 <p>설비 통신사업자, 충전소 설치·운영</p>	 <p>연관 보험, 금융, 투자 등</p>

03

산업



정부의 할일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유도

자생력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흐름을 유도하되 건전한 생태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방위 조정, 역할과 책임 분배, 소비자 구매방안** 등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사회적 합의

연계교통 제공 시 피해 완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유도**



산업

기대효과



교통 혁신

인천공항→과천
대중교통 이동 시

기존 122분 → 17분



김포공항→잠실
자가용 이동 시

기존 73분 → 12분



도시지역 드론교통 제공
→ 교통복지로 사회적 가치 실현



• 통행시간 감축에 따른 편익은 수도권 기준 연간 2,700억여원 사회적비용 저감



삶의 혁신

이동가능한 거리의 증가와 여유시간 확대에 따른
가정의 삶, 연인과의 시간, 자기개발 시간 확보



산업의 혁신

AI·5G·클라우드·수소연료 등
교통과 제조분야 첨단산업 발전 촉진

기대효과

추진계획

단기 [1년 내]

미래 드론교통 실현에 필요한 기술·인프라·제도적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나아갈 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정립

중기 [로드맵 후]

제도정비(법령 개정)와 생태계조성을 위한 관계기관·업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등 상용화촉진 업무

궁극적 목표

'23년 드론택시 지원이 가능한 교통관리체계 시범서비스 운영

추진목표

참고 3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추진 출범식

개소식 행사('19.8.13(화) 10:00~10:30) 시 촬영 후 배포 예정

<개소식 사진>

개소식 행사('19.8.13(화) 10:00~10:30) 시 촬영 후 배포 예정

<개소식 사진>